

800gset
320074
새미골 찻그릇
4Pcs

이 그릇은 하동 새미골 가마에서 만든 찻그릇입니다.

새미골 가마는 진주목 관하의 도자소로서 조선 시대 분청사기의 주요 생산지였으며 16세기 말의 임진왜란 때에 함몰되었다가 1974년에 발굴되었습니다.

이 찻그릇은 400여년 전의 바로 그 자리에 복원된 가마에서 그때와 같은 흙과 유약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무수한 빙결이 있는 담황색 부드러운 표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윽한 연륜의 고색을 띠게 됩니다.

미세한 숨구멍들을 통하여 그릇이 숨을 쉬기 때문이며 이로써 차맛까지 독특한 풍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청자나 백자와는 다른 이 그릇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하동
새미골가마



河東井戶鄉窯

張今貞

1055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연리 139 ☎ 667-910 전화(0595)882-3720, 883-4361 팩시밀리(0595)883-7996

セミコルの
湯呑茶碗

この器は 河東のセミコル窯で 焼かれた 湯呑茶碗です。

セミコルの窯は 晉州牧管下の陶磁所として、朝鮮時代には 粉青磁器のおもな生産地だったが、16世紀末の壬辰の乱の折に 埋没され、1974年に 再び発掘されました。

この湯呑茶碗は 400余年前の発祥の地に、復元された窯で、この地独特の土と釉薬を使い、昔ながらの手の動きで、つくられたものです。



あまたの亀裂のある 淡黄色のたおやかな表面は、月日を重ねるにつれ、悠々たる年輪の古色を帯びて来るのです。微細な息吹き穴を通して 器が息をているせいで、それゆえ水の味にも 独特の風味を添えるのです。これは青磁や白磁とは異なる、この器のみの特徴といえましょう。

하동
새미골가마



河東井戸郷窯
張今貞

セミコル窯(井戸郷窯)：〒667-910 大韓民国慶尚南道河東郡辰橋面白連里139 TEL (0595)882-3720. 883-4361 FAX (0595)883-7996